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한 재일한인분야 지식구조 분석*

정영미**
yomjung@deu.ac.kr

이경규***
lk5120@deu.ac.kr

<目次>

- | | |
|-------------------|----------------|
| 1. 서론 | 3.2 분석 방법 |
| 2. 이론적 배경 | 4. 분석 결과 |
| 2.1 재일한인 관련 연구 동향 | 4.1 기술통계 분석 결과 |
| 2.2 지식구조와 네트워크 분석 | 4.2 네트워크 분석 결과 |
| 3. 연구 설계 및 방법 | 5. 결론 및 요약 |
| 3.1 데이터 수집 | |

主題語: 네트워크분석(network analysis), 재일한인(Korean-Japanese),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 연구동향(research trends), 키워드분석(keyword analysis)

1. 서론

오늘날 재일한인의 구성은 조선에 대한 일제 식민지 통치라는 역사적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제강점시기 전후 조선인의 자발적 이주에 이외에도 조선인을 일본으로 강제 연행한 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에 남게 된 이들이 오늘날 재일한인의 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는 재일한인의 정체성과 위상 확립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2005년 도쿄 미나코구(東京都港区)에 재일한인역사자료관¹⁾이 설립되기도 했다. 재일한인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이 분야 연구 또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4914839)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일본어학과 교수, 교신저자

1) 재일한인역사자료관 홈페이지. <<http://www.j-koreans.org/kr/index.html>>, [인용 2017. 9. 10.]

재일한인의 역사에 대한 기념·기록적 측면 이외에도 재일한인분야 연구에 대한 관심은 주류 사회에 관련된 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마이너리티, 즉 ‘내부의 타자’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의 증가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이나 언어, 종교 등의 면에서 다수파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 소수파 또는 사회적 약자인 마이너리티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재일한인이기도 하다.²⁾ 일본 마이너리티 연구의 주된 대상은 포스트 콜로니얼(post-colonial),³⁾ 디아스포라(diaspora)⁴⁾ 등의 영역과 인접하며, 주로 근대 제국의 외부 또는 경계에 위치해 있는 재일한인의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재일한인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기존의 연구는 유명작가의 작품론을 중심으로 한 문학 분야의 개별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발행된 재일한인 관련 국내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계량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일한인분야 연구 동향과 지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발행된 재일한인분야 논문에 대한 기술통계뿐만 아니라, 이 분야 지식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논문들의 저자 키워드 동시출현정보를 활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추가로 재일한인분야 연구 주제에 대한 추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논문 발행시기별 비교 분석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재일한인분야의 지식구조는 해당 분야 연구자들에게 기존 연구들에 대한 통찰적인 분석과 조망을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의 미래 연구 주제 발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재일한인 관련 연구 동향

재일한인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는 다음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
- 2) 재일한인과 관련된 용어는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코리안, 재일동포, 재일교포, 자이니치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민족 전체를 아우른다는 차원에서 일본의 한민족을 통칭하여 이하 ‘재일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재일한인의 명칭뿐만 아니라 그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해둔다.
 - 3) 포스트콜로니얼은 식민지를 겪고 나서 독립을 한 나라들이 겪는 사회상(친일청산, 식민통치유산 제거 등)의 보편성 범주를 말한다.
 - 4) 디아스포라의 뜻은 흩어진 사람들을 일컫는데, 특히 유대인으로서 팔레스타인 밖으로 강제 이주된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일제강점의 초기 디아스포라는 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한 것이 많았지만 해방 이후의 디아스포라는 자발적 이민이 중심이었다.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한창(2005)은 재일한인 문학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 현황을 분석하여 이들 문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⁵⁾ 그는 재일동포문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선인이 일본어로 발표한 문학으로써 조선적인 색채를 띤 문학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범위에 있어서도 해방 전의 저항문학에서부터 최근까지의 조선인명으로 발표된 작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일동포문학의 역사를 초창기, 저항과 전향문학기, 조국 현실기, 사회고발 문학기, 주체성 탐색문학기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현재의 재일동포문학은 일본사회의 변화와 동포사회의 세대교체에 따라 민족성을 앞세우던 1세대의 정치성이 짙은 문학의 흐름이 퇴조하고, 2세대 이후의 작가들은 일본사회에서의 삶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재일동포문학 연구의 현황으로서 한국측 연구 동향과 일본측 연구 동향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양국 공히 관련 분야의 연구가 매우 미진한 상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우원용(2010)은 오키나와 문학과 재일조선인·한국인 문학을 통해서 일본 마이너리티문학의 양상을 고찰하였다.⁶⁾ 그는 한국의 연구자에 의한 일본문학 연구는 주로 다수의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너리티 문학과 주류 문학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류 문학 자체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학적 과제를 마이너리티 문학이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지형(2014)은 일본 마이너리티 문학의 연구 현황을 개괄하고 그 과제와 가능성에 관해서 기술한바 있다.⁷⁾ 그는 재일코리언 문학, 오키나와 문학, 피차별 부락민 문학의 마이너리티 관점에서 잉태된 문학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있어도 이를 포괄하는 통일적 범주에서의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봉언·이채문(2014)은 주제어 분석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물들의 연구 동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⁸⁾ 주제어를 통한 연구 동향 분석은 관련 연구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연구물들의 주제어 중 부족한 연구는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 이한창(2005)「재일 동포문학의 역사와 그 연구 동향」『일본학연구』제17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245-263

6) 강우원용(2010)「일본 마이너리티문학 연구의 양상과 가능성 -오키나와문학과 재일한국인·조선인문학을 중심으로-」『일본연구』제14집,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pp.203-225

7) 이지형(2014)「일본 마이너리티문학 연구의 현재와 미래」『일본학보』제100집, 한국일본학회, pp.61-78

8) 서봉언·이채문(2014)「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본 한국의 디아스포라 연구 동향」『디아스포라연구』제15집,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pp.43-6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일한인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주제적으로 문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학 분야에 한정된 연구만이 아니라 학문분야 전반에 걸친 재일한인분야 연구의 지식구조를 시각화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계량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논문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 방법론적 해석은 다음 절에 포함하였다.

2.2 지식구조와 네트워크 분석

이전에 수행된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는 것은 대부분의 주제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의 시작점에 해당한다. 효과적인 선행 연구 검토는 해당 분야 이론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이미 많은 연구가 존재하는 주제 영역을 축소하고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주제 영역을 밝혀낼 수 있다.⁹⁾ 특정 주제 분야나 기술의 보다 통찰적인 발견과 진화 과정을 조망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량정보학(informetrics)이 적용되어왔다. 계량정보학은 주제 분야나 정보의 유형에 관계 없이 모든 정보의 양적 측면에 관한 연구이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정보학의 초기에는 유용성에 대한 인식 저조, 분석도구 사용의 어려움, 그리고 적용범위 등의 한계로 인해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지식의 산출물인 논문, 특허에 한정해서 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 모든 통계 처리가 용이한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형태의 지식을 분석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다양한 계량정보학 분석방법론이 개발·활용되고 있다. 그 유형은 크게 시각화, 통계분석, 추세분석, 데이터마이닝, 그리고 지표분석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과 세부적인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1>과 같다.¹¹⁾

9) Webster, Jane and Watson, Richard T.(2002)“Analyzing the Past to Prepare for the Future: Writing a Literature Review”, MIS Quarterly Vol.26, No.2 p.xiii

10) Tague-Sutcliffe, Jean(1992)“An introduction to Informetrics”, Jour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 Special issue on Informetrics Vol.28, No.1 p.1

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8)『계량정보 분석방법론의 과학기술 적용사례 조사·분석 연구』, pp.9-13

<표1> 계량정보 분석방법론의 유형

유형	내용	분석 방법
시각화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다차원 자료들을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에 맵핑시키는 것	다차원척도법
		개념지도(concept map)
		사회네트워크분석
통계분석	일반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각종 서지 통계 및 논문 및 특허 출판 개수 등을 파악	기초통계량
		Clustering
		Classification
추세분석	기술의 시간적 진화에 대해 분석하여 과거 자료의 패턴을 확장하여 미래를 예측함	시계열 분석
		성장곡선
		수학 모델링
데이터마이닝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문서로부터 자동적으로 정보를 추출하고 패턴을 분석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지표분석	조사된 자료 자체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수식을 통한 지표를 개발하여 각 개체들의 특성을 분석	입력지표
		중간지표
		출력지표
		성과지표

재일한인분야 연구 동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른 인문분야의 주제와 같이 계량정보학적 접근을 시도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질적 내용 분석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한정(2012)¹²⁾은 2010년 이후 발표된 연구 중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논문 제목에 직접 사용한 논문을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디아스포라 담론이 재일조선인 연구에서 어떤 논점을 유발시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이한창(2005)¹³⁾, 강우원용(2010)¹⁴⁾, 그리고 이지형(2014)¹⁵⁾의 연구 또한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선행 논문이나 도서의 일부를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의 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계량정보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관련 분야 선행연구로는 두 개의 논문이 파악되었다. 윤인진(2010)¹⁶⁾은 재외한인에 관한 2009년까지의 국내 학술지 논문과 석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간행 및 출판 건수, 학문분야별 간행 및 출판 건수를 통계분석의 기초통계량을 통해

12) 이한정(2012)「동향과 쟁점: 재일조선인과 디아스포라 담론」『사이間』제12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pp.259-284

13) 이한창, 앞의 논문

14) 강우원용, 앞의 논문

15) 이지형, 앞의 논문

16) 윤인진(2010)「재외한인연구의 동향과 과제」『재외한인연구』제21호, pp.326-356

과악한 바 있다. 또한 서봉언과 이채문(2014)은 2003-2013년의 10년간 사회과학분야 학술지에서 출판된 디아스포라 관련 논문 64건을 대상으로 출판 건수의 기초통계를 파악하고, 중심 키워드 13개를 추출하여 키워드의 동시출현(co-occurrence)정보를 통해 다차원척도법(MDS: Multi Dimensional Scaling)을 활용하여 이 분야 연구물의 주요 영역들을 디아스포라, 정체성, 글로벌, 그리고 민족 및 기타영역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재일한인 관련 연구들에 대한 통계분석과 시각화 유형 중 사회네트워크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이후 네트워크분석이라 함) 방법론을 혼합하여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선행연구들과 연구 범위와 방법론에서 차이가 크다.

단순한 키워드 기반 내용분석은 지식을 낱개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지식을 형성하는 열개, 즉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 낼 수 없는 방법이다.¹⁷⁾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네트워크분석은 키워드를 개체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키워드 개별 개체보다 그들 간의 관계성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원래 네트워크 분석은 사람, 조직, 사물 등 분석 객체들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형성하여 네트워크의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으로 양자역학, 물리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주제 분야에 적용되어왔다. 사람과 사람의 친구 관계가 서로 만남이나 정보 교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텍스트에서의 의미를 가진 키워드 간의 관계는 한 문장 혹은 문단 등 분석 단위 안에 동시에 나타났는지를 기준으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¹⁸⁾ 즉 본 연구에서는 특정 분야의 논문으로부터 저자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들의 논문에서의 동시출현정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최근 이러한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은 특정 주제 분야의 지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네트워크 분석의 대표적인 개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결망 결속에 관한 개념으로는 연결 정도, 밀도, 포괄성이 있다.¹⁹⁾ 여기에서 연결정도(degree)는 한 객체가 맺고 있는 다른 객체의 숫자를 의미하고, 밀도(density)는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총관계의 수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 수의 비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포괄성(inclusiveness)은 한 그래프에 포함된 객체의 총수에서 연결되어 있는 않은 독립적인 객체의 수를 뺀 수의 비율이다. 즉 연결정도가 높은 노드가 많이 포함될수록, 밀도가 높을수록, 포괄성 값이 높을수록 해당 네트워크는 결속력이 강한 조밀한 네트워크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개념으로는 중앙성(centrality)이 있다. 이것은 객체가 중앙에 위치하는 정도를

17) 사이람(2015)『소셜네트워크분석활용백서: 지식지도구축』2015-04-13-KN-01, p.3

18) 김용학(2011)『제3판 사회연결망분석』박영사, p.317

19) 위의 책, p.63

나타내는 개념으로 네트워크에서 그 객체의 영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객체가 얼마나 많은 다른 객체와 연결되어있는지, 또는 하나의 객체가 다른 모든 객체들에 도달하려면 몇 단계나 필요한지 등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앙성 개념의 유형²⁰⁾은 연결정도 중앙성, 인접 중앙성, 사이 중앙성, 위세 지수 등이다. 먼저 연결정도 중앙성(degree centrality)은 연결된 객체의 수를 통해 중앙성을 파악하는 개념으로 방향성이 있는 경우 내향 연결정도(indegree)와 외향 연결정도(outdegree)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접 중앙성(closeness centrality)은 한 객체의 다른 객체와의 인접성 혹은 거리를 측정하는 지표. 한 객체가 다른 모든 객체에 도달하는 경로의 합으로 계산하며 그 합이 가장 작은 객체가 가장 높은 인접 중앙성을 지닌다.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객체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로 한 객체가 다른 객체들 사이의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선, 즉 최단 경로 위에 위치하면 할수록 그 객체의 사이 중앙성은 높아진다. 위세 지수(prestige index)는 자신의 연결정도 중앙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과 자신과 연결된 타 객체의 영향력을 합하여 계산된 값이다.

3. 연구 설계 및 방법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는 2000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 주제 분야에 걸쳐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재일한인 관련 논문이다. 분석 데이터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이후 KCI라고 함)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논문의 제목, 키워드, 그리고 초록을 대상으로 ‘재일한인’ 관련 주제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재일한인’ 관련 주제 키워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제명 표목표, 한국연구재단 KCI 검색도구, 일본학 분야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하였다. 검색 결과 ‘재일한인’으로 167편, 그리고 관련어로 조사된 ‘재일조선인’이 441편, ‘재일동포’가 200편, ‘재일한국인’이 174편, ‘재일본조선인’이 52편, ‘자이니치’가 35편으로 나타났다. 각 주제 키워드 검색결과에서 중복된 논문은 제외하고 수집하였다. 즉 ‘재일한인’ 관련하여 KCI에 축적되어 있는 논문은 총 819편으로 이 논문들 모두가 분석대상이다.

20) 위의 책, pp.67-70

3.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재일한인분야 지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의 계량정보 분석방법론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분석 데이터를 대상으로 논문생산추이, 연구 분야, 발행기관, 그리고 재일한인분야 주요 주제 키워드 등은 기술통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도구로 수집된 논문의 서지정보 추출 및 정리를 위해서는 Endnote x8을, 기술통계는 SPSS v23을 사용하여 정리·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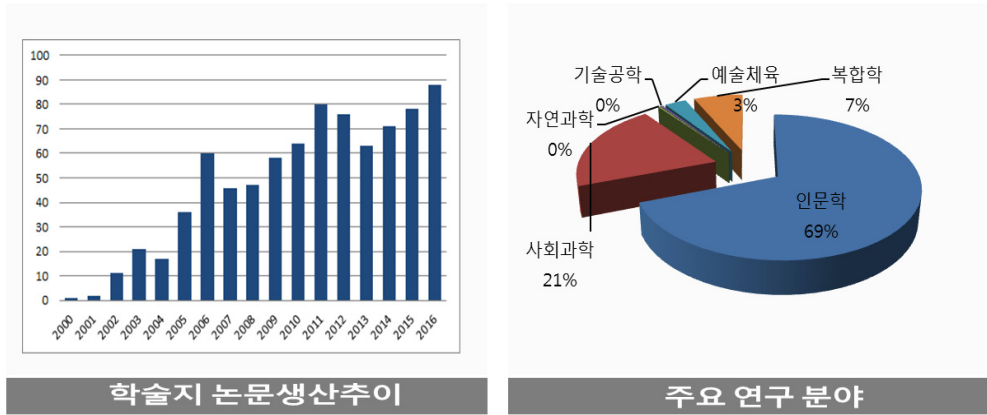
그리고 2000년 이후 재일한인분야 학문동향 및 지식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수집된 논문의 저자키워드의 동시출현정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표현이 다른 동의어, 예를 들면 ‘625전쟁’과 ‘한국전쟁’은 ‘한국전쟁’으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조총련’은 ‘조총련’으로와 같이 단체명이나 사건명과 같은 고유명사 표기와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 등이 혼용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용어를 통일하였다. 또한 복합명사가 키워드로 사용된 경우 일부 단어는 띄어쓰기를 통제하였다. 이 외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유사어 등은 키워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키워드 추출 및 동시출현 매트릭스는 KrKwic을 사용하여 작성하였고 네트워크분석은 UCINET 6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위해서는 NetDraw를 사용하였다.

4. 분석 결과

4.1 기술통계 분석 결과

4.1.1 재일한인관련 논문생산추이

KCI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재일한인분야 국내 학술지의 논문생산은 <그림 1>의 학술지 논문생산 추이의 그래프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재일한인분야 학술지 논문생산추이와 주요 연구 분야

2000년 1편의 논문생산은 2006년 60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잠시 주춤하였고 2011년 80편, 2016년 88편으로 2000년 이후 최근에 가장 많은 양의 논문이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재일한인분야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4.1.2 주요 연구 분야

2000년 이후 재일한인에 관련된 연구는 <그림1>의 주요 연구 분야와 같이 인문학을 비롯하여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수행되어왔다. 특히 568편의 논문이 생산된 인문학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와 문학이 171편, 일본어와 문학이 155편, 기타인문학이 108편, 역사학이 74편, 그리고 기타가 60편으로 나타났다. 167편이 생산된 사회과학 분야는 사회과학일반이 30편, 정치외교학이 24편, 일본문화학이 20편, 사회학이 19편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복합학에서 55편, 예술체육에서 24편, 기술공학에서 3편, 자연과학에서 2편이 생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주요 연구 분야에서 재일한인관련 논문생산추이를 살펴보면 <표2>와 같다. 발행년과 주요 연구 분야간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유의수준 $p \leq 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연구 분야에서 논문생산량이 많아지고 있고 인문학보다는 사회과학과 기타 주요 연구 분야에서의 증가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일한인의 주제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학문기반의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고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2> 연도별 주요 연구 분야에서 재일한인관련 논문생산추이

발행년	주요 연구 분야						전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공학	예술체육	복합학	
2000	1	0	0	0	0	0	1
2001	0	1	0	1	0	0	2
2002	10	1	0	0	0	0	11
2003	17	4	0	0	0	0	21
2004	7	7	0	0	0	3	17
2005	27	4	0	0	0	5	36
2006	48	6	0	0	0	6	60
2007	27	10	0	1	2	6	46
2008	29	8	2	0	2	6	47
2009	46	11	0	0	0	1	58
2010	46	9	0	0	4	5	64
2011	50	20	0	0	6	4	80
2012	52	17	0	0	4	3	76
2013	38	20	0	0	1	4	63
2014	51	15	0	0	1	4	71
2015	55	19	0	0	1	3	78
2016	64	15	0	1	3	5	88
전체	568	167	2	3	24	55	819

4.1.3 발행기관

재일한인 관련 논문 819편은 110개 발행기관을 통해 생산된 만큼 매우 다양한 주제의 연구 기관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문을 생산한 상위 10개 기관은 한일민족문제학회가 42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외에 한국문학회, 한국일본문화학회, 한중인문학회, 한국일본어학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일본어학회, 한국학연구소, 한국동북아학회, 일본학연연구소 순이다. 재일한인 관련 논문의 발행지는 앞의 상위 발행기관의 소속 발행지들로 발행지별 논문생산 개수는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재일한인 관련 논문생산 상위 발행기관과 발행지

No.	발행기관	발행지	논문생산 갯수
1	한일민족문제학회	韓日民族問題研究	42
2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총	29
3	한국일본문화학회	日本文化學報	26
4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25
5	한국일본어문학회	日本語文學	22
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1
7	일본어문학회	일본어문학	19
8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18
9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17
10	일본학연구소(동국대)	日本學(일본학)	17
총 계			236

4.1.4 주요 주제 키워드

재일한인분야 논문들의 저자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사용된 키워드는 총 7,982개였고 중복을 제외하고 사용된 키워드는 2,949개였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는 ‘재일조선인’으로 총 263회 나타났고 이와 유사하게 주제 분야를 표현하는 ‘디아스포라’, ‘재일동포’, ‘재일한인’, ‘재일한국인’, ‘재일코리안’ 등이 상위출현 키워드의 한 그룹을 형성했다. 이를 제외하고 ‘재일’과 ‘문학’이 100회 이상 출현하였고, ‘정체성’, ‘민족’, ‘조총련’, ‘일본’, ‘민족정체성’, ‘교육’, ‘민단’, ‘조선인’, ‘한국어’, ‘기억’, ‘이양지’, ‘전후’, ‘한인’, 그리고 ‘김달수’가 20회 이상 출현하였다.

출현빈도 20회 이상의 최상위 출현 키워드에는 ‘재일조선인’, ‘재일동포’, ‘재일한인’, ‘재일한국인’, 그리고 ‘재일코리안’과 같이 연구대상 주제 분야 자체를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키워드들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외의 최상위 출현 키워드에는 연구대상 주제의 하위 주제에 해당하는 ‘재일’, ‘일본’, ‘한인’, ‘조선인’, 주요한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문학’, ‘교육’, 민족과 밀접한 ‘디아스포라’, ‘정체성’, ‘민족’, ‘민족정체성’, 주요 재일한인 단체인 ‘민단’, ‘조총련’, 주요 재일문학인 ‘이양지’, ‘김달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8회~19회 출현한 키워드에는 ‘시문학’, ‘소설’, ‘북한문학’과 같은 문학의 하위 장르들, 문학인들, 문학관련 잡지, 문학 단체를 포함한 ‘문학’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재일한인과 관련된 사회, 정치적 이슈와 개념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있고 해석이 가능한 지식지도, 즉 연구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해 8회 이상 출현한 상위 출현 키워드 110개를 대상으로, 이들의 동시출현정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대상 110개의 키워드는 <표4>와 같다.

<표4> 상위 출현 키워드(8회 이상)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재일조선인	263	한인	21	갈등, 귀국, 귀국사업, 기업가, 김학영, 모국어, 문예동, 양석일, 의식, 잡지, 재외동포, 조선적, 조선족, 참정권, 통일	10
재일	122	김달수	20		
문학	119	국적, 차별	19		
디아스포라	108	시문학, 한일회담	18		
재일동포	102	이데올로기, 한국인	17		
정체성	94	언어, 이주, 조선	16		
민족	75	김석범, 김시중, 뉴커머, 북한, 사회, 식민지	15	강순, 경계, 공생, 민족적, 북송, 분단, 영화, 운동, 유미리, 이카이노, 인식, 지향, 한국, 한류, 허남기	9
재일한인	74				
재일한국인	45				
조총련	44	네트워크, 다문화, 소수자, 일본어	14		
일본	41				
민족정체성	38	문화, 소설, 오사카, 조국	13		
교육	37				
민단	29	경계인, 국가, 귀환, 냉전, 민족주의, 이회성	12	GHQ, 고향, 국민국가, 법적지위, 북한문학, 삼천리, 여성, 울드커머, 장혁주, 재일문학, 재일본조선인연맹, 정치, 제주도, 조선학교, 폭력, 한국전쟁, 한신교육투쟁, 한인타운, 현월	8
조선인, 한국어	27				
기억	26	공간, 귀화, 문화적, 식민주의, 역사, 일본인, 작가, 정책, 조선어, 코리아	11		
재일코리안	25				
이양지	23				
전후	22				

4.1.5 시기별 주요 주제 키워드

재일한인분야 논문들의 시기별 연구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발표 시기에 따라 2000~2005년, 2006~2010년, 그리고 2011~2016년의 5~6년 주기별로 저자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2000~2005년에는 88편, 2006~2010년에는 275편, 그리고 2011~2016년에는 456편으로 이 분야 논문의 생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구 분야 또한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복합학, 예술체육 분야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기별 주요 주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시기별 상위 출현 키워드는 <표5>와 같다. 2000~2005년에 발행된 논문에서 사용된 키워드는 총 600개였고 중복을 제외하고 사용된 키워드는 368개였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는 ‘문학’과 ‘재일동포’로 각 25회씩 나타났고, 다음으로 ‘재일’, ‘정체성’, ‘재일조선인’, ‘재일한인’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2006~2010년에 발행된 논문에서 사용된 키워드는 총 2,199개로 중복을 제외하면 1,225개였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는 ‘재일조선인’으로 총 74회였고, 다음으로 ‘재일’, ‘디아스포라’,

‘민족’, ‘문학’의 순이었다. 2011~2016년에 발행된 논문에서 사용된 키워드는 총 3,559개이고 중복을 제외하면 1,911개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는 ‘재일조선인’으로 총 176회 사용되었고 ‘디아스포라’, ‘문학’, ‘정체성’, ‘재일동포’의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시기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된 상위 출현 키워드는 ‘문학’, ‘재일동포’, ‘재일’, ‘정체성’, ‘재일조선인’, ‘재일한인’, ‘민족정체성’, ‘재일한국인’, ‘민족’, 그리고 ‘조총련’이었다. 반면 ‘디아스포라’, ‘일본’, ‘교육’, ‘민단’은 2006년 이후 논문들에서 상위 출현 키워드로 등장하였고 최근까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키워드이며, ‘재일코리아’, ‘기억’, ‘전후’, ‘이양지’, ‘김달수’, ‘조선인’은 2011년 이후 발행된 논문들에서 새롭게 등장한 상위 출현한 키워드에 해당한다. 시기별 주요 주제 키워드들은 최근의 연구 주제 동향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분야 주제를 다루는 새로운 연구진의 등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표5> 시기별 상위 출현 키워드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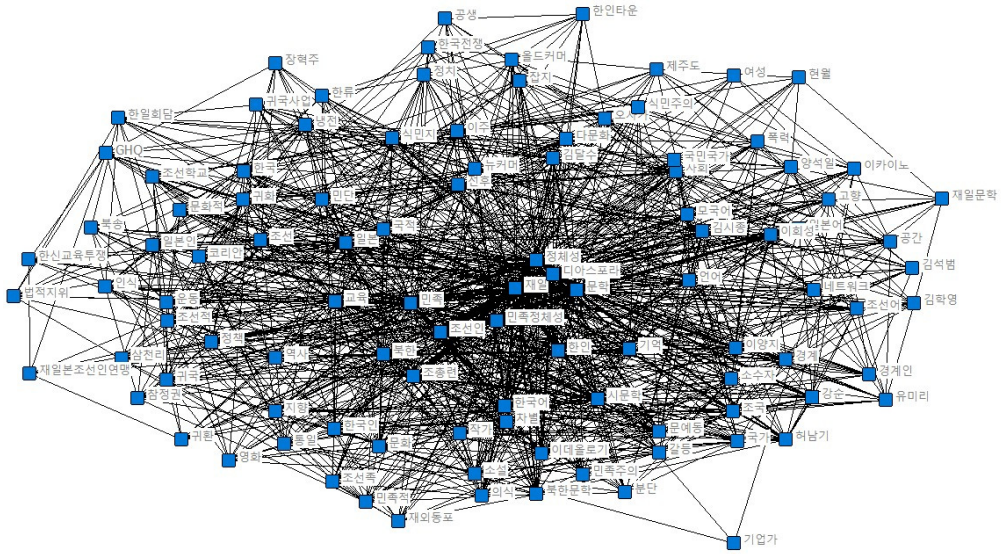
2000~2005년		2006~2010년		2011~2016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문학	25	재일조선인	74	재일조선인	176
재일동포	25	재일	59	디아스포라	67
재일	23	디아스포라	41	문학	58
정체성	17	민족	37	정체성	44
재일조선인	13	문학	36	재일동포	41
재일한인	11	재일동포	36	재일	40
한국어	11	정체성	33	재일한인	35
민족정체성	9	재일한인	28	민족	32
재일한국인	9	조총련	20	재일한국인	25
민족	6	일본	19	재일코리아	23
조선인	6	교육	18	일본	21
조총련	6	민족정체성	14	기억	20
시문학	5	국적	12	전후	20
정보요구	5	민단	12	조총련	18
한국인	5	이데올로기	12	교육	17
한국	5	한국어	12	이양지	17
아나키즘	4	네트워크	11	민족정체성	15
재외동포	4	재일한국인	11	김달수	14
차별	4	조선	10	민단	14
정보행태	4	한인	10	조선인	13

4.2 네트워크 분석 결과

4.2.1 재일한인분야 전체 연구 네트워크

연구대상 관련 주제 키워드 ‘재일한인’ 외 4개를 제외하고 분석대상 키워드 105개를 대상으로 UCINET 6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키워드들 간에 직접적인 관계는 총 2,486번으로 나타나서 평균 연결정도는 23.676이다. 재일한인분야 연구 네트워크의 밀도는 0.228로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과 ‘문학’은 49개의 논문에서 동시에 출현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재일’와 ‘디아스포라’, ‘재일’와 ‘조선인’, ‘재일’와 ‘시문학’, ‘민족’과 ‘교육’, 그리고 ‘재일’와 ‘정체성’ 등의 순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간 동시에 출현정보를 활용하여 재일한인분야 연구 주제의 중앙성에 기반한 연구 네트워크를 그려 보면 <그림2>와 같다. 시각화 도구로는 NetDraw를 사용하였다.



<그림2> 재일한인분야의 연구 네트워크

<그림2>는 키워드의 다양한 중앙성 값을 종합한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으로, 이 중 재일한인분야에서 가장 연결정도 중앙성이 높은 주제 키워드는 ‘재일’이며, ‘문학’, ‘디아스포라’, ‘정체성’, ‘민족’, ‘조총련’, ‘시문학’, ‘조선인’, ‘민족정체성’, ‘교육’, ‘한국어’, ‘일본’의 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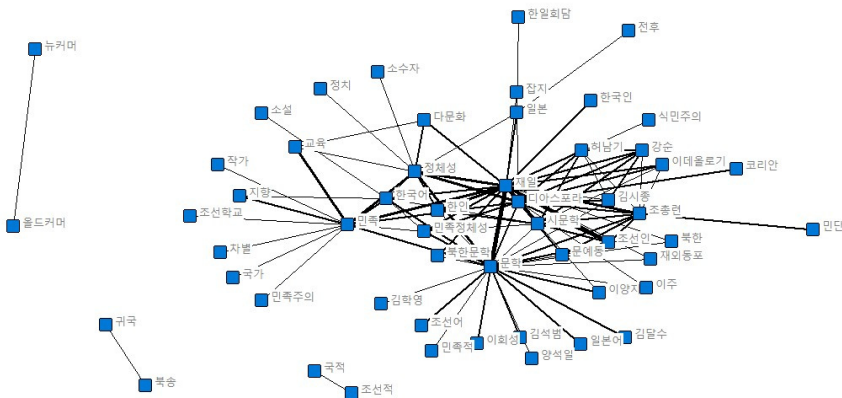
연결정도 중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키워드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키워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이 중앙성은 ‘재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디아스포라’, ‘문학’, ‘정체성’, ‘민족’, ‘일본’, ‘민족정체성’, ‘교육’, ‘조총련’, ‘전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키워드와 다른 키워드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인접 중앙성은 다른 중심성과 마찬가지로 ‘재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디아스포라’, ‘문학’, ‘정체성’, ‘민족’, ‘민족정체성’, ‘일본’, ‘교육’, ‘조총련’, ‘조선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시문학’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가 많아 연결정도 중앙성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키워드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매개성이 낮아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또한 인접 중앙성이 낮아 네트워크 안에서 지리적으로도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후’는 다른 키워드와의 직접적인 연결정도가 다소 낮지만 다른 키워드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매개성인 사이 중앙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중앙성 값을 종합하여 각 키워드는 연구 네트워크에 표시되어 있으며, 지도에서 외곽으로 빠져 있는 키워드는 분석에 사용된 키워드들 중 상대적으로 중앙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한 네트워크로부터 보다 의미있는 해석을 위해 연결정도 중앙성이 높았던 키워드 10개에 대해 재일한인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구되어온 주제 키워드를 도출하여 정리하면 <표5>와 같다. 이를 위해 키워드간 연결정도가 4이상인 경우만 포함하여 10개 키워드 각각에 대한 자이중심성 네트워크 분석(EgoNet)을 실시하였다. ‘재일’의 키워드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키워드들과 전방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문학’과 연결된 키워드는 다수 문학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일한인분야의 문학 관련 연구들은 이양지, 김달수, 이희성, 양석일, 김학영, 김시중 등의 개별 문학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재일한인분야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민족, 다문화, 정체성 교육이 주요 주제 키워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을 통해 재일한인분야 주요 주제들에서 많이 다루어진 하위 연구 주제들과 관련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어 새로운 연구 주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6> 중앙성 상위 키워드와 연결 주제 키워드

중앙성 상위 키워드	연결 주제 키워드(degree≥4)
재일	문학, 디아스포라, 조선인, 시문학, 조총련, 민족, 정체성, 한인, 이데올로기, 허남기, 강순, 한국어, 문예동, 북한문학, 민족정체성, 한국어, 북한, 식민주의, 잡지, 일본, 재외동포, 김시중
문학	재일, 정체성, 디아스포라, 민족, 한국어, 민족정체성, 이양지, 김달수, 이회성, 조선인, 김석범, 조선어, 일본어, 조총련, 북한, 양석일, 재외동포, 문예동, 한인, 이주, 김학영, 민족적, 시문학, 북한문학, 김시중
디아스포라	재일, 정체성, 문학, 시문학, 조총련, 민족, 강순, 허남기, 코리안, 이데올로기, 김시중, 문예동, 조선인, 이주, 일본, 이양지
정체성	재일, 민족, 디아스포라, 문학, 다문화, 한인, 한국어, 교육, 일본, 정치, 소수자
민족	교육, 정체성,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한국어, 지향, 민족정체성, 차별, 조선학교, 작가, 국가, 민족주의
조총련	재일, 디아스포라, 민단, 시문학, 문예동, 조선인, 문학, 허남기, 이데올로기, 강순
시문학	재일, 디아스포라, 조총련, 조선인, 강순, 허남기, 한인
조선인	재일, 시문학, 문학, 디아스포라, 조총련, 문예동
민족정체성	문학,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한국어, 민족
교육	민족, 다문화, 정체성

중앙성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연결정도 4이상인 모든 키워드들에 대한 연구 네트워크를 시각화해보면 <그림3>과 같다. ‘재일’, ‘문학’, ‘디아스포라’, ‘정체성’, 그리고 ‘민족’ 키워드가 형성하고 있는 각 하위 네트워크는 이들 간의 직접적이고 밀도 높은 연결을 기반으로 하나의 상위 네트워크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뉴커머’와 ‘올드커머’, ‘귀국’과 ‘복송’, ‘국적’과 ‘민족적’은 연결정도 4이상의 네트워크에서는 다른 하위 네트워크들과 단절되어 나타났다.



<그림3> 재일한인분야의 연구 네트워크: 연결정도 4이상

4.2.2 시기별 재일한인분야 연구 네트워크

앞의 시기별 주요 주제 키워드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2000~2005년, 2006~2010년, 2011~2016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재일한인분야 연구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았다. 세 시기별 비교분석을 위해 가장 생산 논문수가 적고 사용된 키워드가 적게 나타난 2000~2005년을 기준²¹⁾으로 각 시기별 상위 출현 키워드 62개씩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7>과 같다. 시기별 재일한인분야 연구 네트워크들 중 가장 밀도가 높은 시기는 2006~2010년으로 평균 연결정도가 14.548, 밀도가 0.238이다. 이 시기의 네트워크는 발행 논문수와 사용 키워드가 더 많은 2011~2016년의 네트워크보다 더 높은 밀도를 가지며, 또한 전체 시기의 연구 네트워크보다도 더 조밀하다. 즉 이 시기에 발행된 논문들은 주제간 관계성이 높거나 동일 주제의 논문이 많이 발행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표7> 시기별 재일한인분야 연구 네트워크 속성

	2000~2005년	2006~2010년	2011~2016년
분석 키워드 수 (출현 횟수)	62개(2회 이상)	62개(4회 이상)	62개(6회 이상)
연결정도 (평균연결정도)	368 (5.935)	902 (14.548)	810 (13.065)
밀도	0.097	0.238	0.214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주제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 시기별 연결정도, 사이, 그리고 인접 중앙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8>과 같다. 2000~2005년에는 ‘재일’과 ‘문학’이 가장 중심성이 높은 주제 키워드로 나타났고, 2006년 이후의 두 시기에는 ‘재일’과 ‘디아스포라’가 가장 중심성이 높은 주제 키워드였다. 즉, ‘디아스포라’는 2006년 이후 모든 유형의 중앙성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낼 정도로 최근의 재일한인분야의 핵심적인 주제 키워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일본’, ‘기억’, ‘전후’, ‘사회’와 같은 사회·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주제 키워드들이 연구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조총련’, ‘북한문학’,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주제 키워드들은 2000년 초반에 중심성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가, 최근에는 중심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로 변함없

21) 2000~2005년에 발행된 논문에서 2회 이상 사용된 키워드는 모두 66개였다. 여기에서 ‘재일한인’, ‘재일 동포’,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과 같은 연구 대상 주제 키워드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된 키워드는 62개이다.

이 이 분야 주제 키워드로 중심성이 높은 것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8> 시기별 중앙성 상위 키워드 10

유형	순위	2000~2005년	2006~2010년	2011~2016년
연결 정도	1	재일, 문학	재일, 디아스포라	재일, 디아스포라
	2			
	3	민족	정체성	문학
	4	민족정체성, 정체성	민족	정체성
	5		문학	민족
	6	한국인, 시문학	조총련	일본
	7		교육	전후
	8	조선인	일본	기억
	9	조총련, 북한문학	한국어	김달수
	10		민족정체성	민족정체성
사이	1	문학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2	재일	재일	재일
	3	조총련	민족	정체성
	4	민족	정체성	일본
	5	민족정체성	일본	문학
	6	1세대	문학	전후
	7	정체성	교육	민족
	8	교육	조총련	기억
	9	한국인, 시문학	이데올로기	김달수
	10		민족정체성	사회
인접	1	문학, 재일	재일, 디아스포라	재일
	2			디아스포라
	3	민족	정체성	문학
	4	민족정체성	민족	정체성
	5	정체성	문학	민족
	6	한국인, 시문학	조총련	일본
	7		교육	전후
	8	조선인	일본, 이데올로기	기억
	9	사회주의, 조총련		김달수
	10		한국어	사회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재일한인분야 연구 동향 및 지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국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통해 발행된 이 분야 학술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계량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KCI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재일한인 관련 주제 검색을 통해 819편의 논문을 수집하였고 해당 논문의 다양한 서지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술통계적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에 1편이었던 재일한인분야 논문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연구 분야도 인문학에서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등으로 점점 다각화되고 있었다. 또한 819편 논문의 발행기관도 110여개로 많은 수의 학회, 연구소, 기타 기관들에서 논문 발행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논문들의 저자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사용된 키워드는 총 7,982개였고 중복을 제외하면 2,949개의 키워드가 사용되었다. ‘재일’과 ‘문학’이 100회 이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정체성’, ‘민족’, ‘조총련’, ‘일본’, ‘민족정체성’, ‘교육’, ‘민단’, ‘조선인’, ‘한국어’, ‘기억’, ‘이양지’, ‘전후’, ‘한인’, 그리고 ‘김달수’가 20회 이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0~2005년, 2006~2010년, 2011~2016년으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논문의 저자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세 시기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 상위 출현 키워드는 ‘문학’, ‘재일동포’, ‘재일’, ‘정체성’, ‘재일조선인’, ‘재일한인’, ‘민족정체성’, ‘재일한국인’, ‘민족’, 그리고 ‘조총련’이었다. 반면 ‘디아스포라’, ‘일본’, ‘교육’, ‘민단’은 2006년 이후 논문들에서 상위 출현 키워드로 새롭게 등장하였고, ‘재일코리아’, ‘기억’, ‘전후’, ‘이양지’, ‘김달수’, ‘조선인’은 2011년 이후 발행된 논문들에서 새롭게 등장한 상위 출현한 키워드였다.

넷째, 상위 출현한 키워드 105개를 대상으로 동시출현정보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키워드들 간 평균 연결정도는 23.676, 밀도는 0.228인 연구 네트워크가 도출되었다. ‘재일’과 ‘문학’은 49개의 논문에서 동시 출현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중앙성이 높은 주제 키워드들은 ‘재일’, ‘문학’, ‘디아스포라’, ‘정체성’, ‘민족’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기별 연구 네트워크를 도출한 결과, 2006~2010년의 연구 네트워크가 가장 밀도 높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1~2016년 시기의 연구 주제가 보다 다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성 분석에서는 2000~2005년은 ‘재일’과 ‘문학’이, 2006년 이후의 두 시기는 ‘재일’과 ‘디아스포라’가 가장 중심성이 높은 주제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2000년 초반에는 ‘조총련’, ‘북한문학’,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중심성 높은 키워드였지만, 최근에는 ‘일본’, ‘기억’, ‘전후’, ‘사회’ 등과 같은 사회·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주제 키워드

들이 연구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정리한 연구 결과와 더불어 제일한인 관련 전 연구 분야의 연구 동향과 지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통계와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어떤 주제 분야든 해당 주제 분야의 지식구조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통찰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미래의 연구 방향 설정과 학문적 발전을 조력하기 위해 중요한 선행 작업이다. 이러한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한인분야의 세부적인 주제별로 깊이 있게 접근해야겠지만 이것은 추후 연구들의 과제로 남기고 본 논문에서는 제일한인분야 국내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그 토대만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 KCI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전의 제일한인 분야 인쇄형 학술논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추가된다면 시기별 제일한인분야 연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추이 변화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參考文獻】

- 강우원용(2010)「일본 마이너리티문학 연구의 양상과 가능성 -오키나와문학과 제일한국인·조선인문학을 중심으로-」『일본연구』제14집,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pp.203-225
- 김용학(2011)『제3판 사회연결망분석』박영사
- 박한우, Leydesdorff(2004)「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Vol.6.No.5, pp.1377-1387
- 사이람(2015)『소셜네트워크분석활용백서: 지식지도구축』2015-04-13-KN-01
- 서봉언·이채문(2014)「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본 한국의 디아스포라 연구 동향」『디아스포라연구』제15집,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pp.43-69
- 윤인진(2010)「재외한인연구의 동향과 과제」『재외한인연구』제21호, pp.326-356
- 이지형(2014)「일본 마이너리티문학 연구의 현재와 미래」『일본학보』제100집, 한국일본학회, pp.61-78
- 이한정(2012)「동향과 쟁점: 재일조선인과 디아스포라 담론」『사이間』제12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pp.259-284
- 이한창(2005)「재일 동포문학의 역사와 그 연구 동향」『일본학연구』제17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245-263
- 재일한인역사자료관 홈페이지<<http://www.j-koreans.org/kr/index.html>>, [인용 2017. 9.10.]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8)『계량정보 분석방법론의 과학기술 적용사례 조사·분석 연구』
- Tague-Sutchliffe, Jean(1992)“An introduction to Informetrics”, Jour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 Special issue on Informetrics Vol.28, No.1, pp.1-3
- Webster, Jane and Watson, Richard T.(2002)“Analyzing the Past to Prepare for the Future:Writing a Literature Review”, MIS Quarterly Vol.26, No.2, pp.xiii-xxiii

논문투고일 : 2018년 01월 01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18년 02월 09일
 2차 수정일 : 2018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2월 19일

〈**요약**〉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한 재일한인분야 지식구조 분석

정영미·이경규

재일한인분야의 연구는 재일한인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가치와 함께 마이너리티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 증가로 수적 증가와 함께 다각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등 전 연구 분야에서 수행된 재일한인 관련 국내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을 통해 재일한인분야의 지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행되어 KCI(Korea Citation Index)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재일한인분야 논문 819편의 서지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논문의 논문생산주어, 연구 분야, 발행기관, 그리고 주요 주제 키워드 등은 기술통계 분석방법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재일한인분야 연구 동향 및 지식구조를 파악하고자 수집된 논문의 저자 키워드를 추출하여 이들의 동시출현정보를 통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도구는 Endnote x8, SPSS v23, KrKwic, UCINET 6, Netdraw이다. 추가로 재일한인분야의 최근 연구 특성과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논문 발행 시기별 분석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재일한인분야의 연구 동향 및 지식구조는 해당 분야 연구자들에게 기존 연구들에 대한 통찰적인 분석과 조망을 제공할 것이고 나아가 이 분야의 미래 연구 주제 발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nalysis of knowledge structure in field of Korean-Japanese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method

Jung, Young-Mi ·Lee, Gyeong-Gyu

The research in the field of Korean-Japanese has been increased and diversified as well with historical value about centennial of Korean-Japanese and growing interests in Minority across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knowledge structure of the field of Korean-Japanese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with Korean articles conducted in the whole research area such as social sciences, arts & sports, and humanities. For this study, the 819 articles in the field of Korean-Japanese which were published in January 2000 through December 2016 in Korea and stored in KCI(Korea Citation Index) database were collected. The article production, research field, publishing organization, and major topic keywords were identifi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method. In order to figure out the research trends and knowledge structure of Korean-Japanese field, we extracted the author keywords of the collected articles and conducted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through the co-occurrence information of them. The analysis tools used in this study were Endnote x8, SPSS v23, KrKwic, UCINET 6, and Netdraw. In addition, we analyzed the period of publication of the article in order to examine recent research characteristics and trends in the field of Korean-Japanese. The research trends and knowledge structures of the Korean-Japanese field derived as a result of this study will provide insightful analysis and perspective on the existing researches to the researchers in the field and can help to find future research topics in this field.